

■ 노인 질환별 운동 요령

당뇨병 - 아침운동, 식사 1~3시간 뒤에



질병이 있는 노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운동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당뇨병을 앓은 노인들은 1~3시간 전에 식사를 한 뒤 운동해야 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힘든 운동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잘 계획된

규칙적인 운동과 미친기지로

심장과 폐기능의 개선,

체중 관리, 질병의 예방 등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30분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과 10분 씩 3회 나눠서

30분 운동할 경우 건강증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동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당뇨병=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운동 1~3시간 전에 식사를 한 뒤 운동을 해야 한다.

경구 혈당강하제의 복용이나 인슐린 투여는 적어도 운동 1시간 전에 해야 하며, 혈당이 300mg/dl 이상이거나 250mg/dl 이상이면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한다.

이 될 수 있다. 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는 하체 근육보다는 배에 주사를 맞는 것을 운동 중간에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혈압=안정시 수축기 혈압이 200mm Hg 이상이거나 이와 혈압이 110mmHg 이상이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안정시 혈압이 160/100 이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고혈압 - 준비운동 하면 심장 부담 줄어

관절염 - 통증 없는 범위 내 30분 정도

단시간 강한 운동은 혈압을 높여 눈의 손상을 일으키거나 혈당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운동 강도를 올릴 때는 운동 전과 후에 저혈당을 확인한다.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이나 당분이 든 음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운동 후에도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운동 후 48시간까지는 저혈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은 저녁에 운동을 할 때는 운동 후에 약간의 간식이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한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예방에 도움

경우는 약으로 치료를 한 후에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

근력운동은 낮은 무게로 여려번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근력운동 중에는 호흡을 멈추는 동작은 급격하게 혈압을 높일 수 있어 호흡을 멈추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

준비운동은 혈액순환을 서서히 증가시켜 갑작스런 운동에 의한 심장의 부담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굳어있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리운동은 운동 종 끝, 다리로 물려 있는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박차

전남도, 46곳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요양시설 14곳을 비롯해 그룹홈 8곳, 소규모 8곳, 재가지원센터 4곳, 농어촌재가 12곳 등 총 46개소다.

이중 상반기에 25개소가 착공됐으며 아직 설계과정인 21개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적극 독려하는 등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점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7월 말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개인시설까지 포함해 요양시설 98개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4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점적으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꾸준하고 안정된 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보강과 서비스 향상에 도전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실버 라운지

임호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80년도에 총인구의 3.8%였으나 2003년에는 8.3%로 증가했고, 2010년도에는 10.7%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 당뇨병환자들은 정상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며, 하지 절단 위험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의한 실명의 빈도도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25배 가량 더 높다. 특히 노인 당뇨병환자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발생이 증가하며, 백내장은 심각한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당뇨병 관리 치료는 철저한

노인 당뇨, 심혈관계 위험 조절 중요

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대에서 15.6%, 70대에서 16.2%의 발병률을 보고한 바 있다.

노인 당뇨병은 많은 경우에서 다음, 다뇨, 다식과 같은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신장의 고혈당에 대한 수치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혈당이 200 mg/dL를 넘어도 소변을 통한 당의 배설이 없고,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 당뇨병은 수년간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의 선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조기 사망, 기능 장애, 당뇨병에 연관된 동반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등이 흔히 발생하며 노인 증후군(우울증, 인지 장애, 요실금, 낙상, 동통)도 동반되기도 쉽다.

혈당 조절과 미세혈관 협병증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혈당조절보다는 심혈관계 위험요인의 조절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당뇨병환자의 치료 원칙은 젊은 환자들의 치료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인 당뇨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노인과 당뇨병, 즉 2가지가 합쳐진 질병이라는 전제하에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결국 노인병 전문의와 당뇨병 전문의, 사회복지사, 영양사, 운동 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당뇨팀의 유기적 활동만이 효과적인 치료를 거둘 수 있다.

노인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 첫째, 혈당치의 큰 변동이나 저혈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고혈당의 정도와 증상은 조절하는 것이며 둘째,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고 세째, 환자의 건강한 전신 상태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씨티병원 원장〉

혈액을 서서히 원활하게 심장으로 되돌려 갑작스런 운동 중단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관절염=처음에는 5~10분 정도 운동하고 서서히 5분씩 시간을 늘려 30분 정도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관절에 통증이 심한 날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으며, 관절이 굳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은 거의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식사 직후나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는 힘든 운동을 하지 말고 식사 2시간 정도 후에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단오르기

나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적인 동작은 매일 실시해야 한다.

운동 후에 1시간이 넘게 계속해서 피로하거나 힘이 없거나 관절이 굳어 있거나 부어 있어 통증이 계속된다면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뇌졸중=처음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열이 심하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비가 있는 쪽의 재활운동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운동 시간과 강도를 몸이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하게 서서히 증가시키며, 운동 종목의 선택은 편미비 정도 및 인지기능의 수준, 보행능력 등에 따라서 차별화돼야 한다.

근력운동은 낮은 무게로 여려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1주일에 2~3회 실시하는, 균형운동 등에 호흡을 참지 않도록 한다.

혈관을 넓히는 약물을 복용하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의 정리운동을 통해서 운동 후 저혈압을 방지할 수 있다.

열이 심하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마비가 있는 쪽의 재활운동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 분=김선진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내 총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 강사진
19회시험 10월26일, 원서접수 8월18일 ~ 8월27일까지 본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개 강	동형문제풀이	족집게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
9월 1일 <small>주간반, 아간반</small>	9월 1일 ~ 9월 12일 (1단계 워밍업)	9월 16일 ~ 10월 5일 (2단계 이론핵심요약정리)	10월 6일 ~ 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정리)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인증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 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위

합격률 1위
내 총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09년 公務員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 강좌종류: 행 교 세 관 법 경 철 교 보 보 복 군 토 전 전 정 행 무 세 원 활 공 정 호 전 지 무 목 축 산 하반기 시험

◎ 개강: 9월 1일 (주 아간반 모집)
● 전날: 9급 세무직 및 전문직 9월 27일 209명 모집
● 전날: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 종합선원위: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 '개인의 합격을 위해 갑(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광주 동부서부 뒤 (종암초교 후문입)

222-4560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평균 96.7점] 합격률 1위!!

공인증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개강 9월 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엄선된 문제 쪽집게 강좌! 합격률을 드러냅니다!

19회 공인증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진검승부 "절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1일 ● 모집인원: 총 50명 (교과·미강유의) ● 강의일정: 8월 1일 ~ 10월 17일

● 강의장소: 본원 (매주 월, 수, 목 오후반) / 첨단 (매주 월, 화, 목, 아간반)

● 수강료: 200,000원 (총 20주) ● 학제적 강제성 제공

● 교수진: 전문 강사 2명, 전문 강사 1명

● 공인증개사 전문 www.landkor.com

● 광주고시학원

●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4층

● 첨단점 ☎ 971-0002 (구)백마트 첨단점 앞 광주은행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